

## 북한경제 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최장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choi.j@kiep.go.kr

너무 진부하지만 ‘의사는 병자의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경제학자는 통계를 보고 경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만큼 경제학자에게 통계란 경제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북한경제를 보여주는 신뢰할만한 통계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신진학자로서 느끼는 한계와 희망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할만한 통계의 결여는 연구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로 그러하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북한경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관련 연구를 접하면서 의외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 가능성을 품고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곧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지와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부터는 자력으로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여기에서 북한 연구를 포기하고 멈춘다. 설혹 운이 좋게 관련연구를 끝낼 수 있었다하더라도 기울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것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게 되어 후속연구를 시도하지 않는다. 간혹 후속연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그 때부터는 연구 분야를 바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북한무역통계를 분석하거나, 탈북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거나, 북한의 경제상황을 임의로 가정된 뒤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경제 연구자가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비슷한 모습으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제한된 북한 연구 방법론이 되고 있다.

연구자료의 결여는 연구방법론의 발전도 해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제한된 연구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박사과정동안 익힌 최신의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설혹 운이 좋아 고급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여도, 대부분 주류경제학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방법론이거나 기존 방법론을 상당한 수준의 가정을 바탕으로 뒤틀어 사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북한경제를 연구하게 되면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주변적인 방법론에 집중하게 되어 경제학자임에도 경제학에서 멀어지고 다른 경제학자와는 학문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북한경제 통계의 부재는 새로운 경제학자의 진입을 막는 한편, 기존 경제학자를 주류경제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학문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고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북한경제는 연구해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가 쉽게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 분야이다. 필자는 그렇기에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기쁨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기쁨은 새로운 것을 밝히는 것에서 있기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북한경제는 학문의 기쁨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경제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연구는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신진 연구자가 많이 진출한 요즘을 기회삼아 북한경제에 대한 더 많은 논쟁과 경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